

지역 소식통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
서천·군산 동문회장 이찬우 씨 취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관리자과정 서천·군산지역 동문회 제9대 회장으로 이찬우(사진) 서구안전종합상사 대표가 취임했다.



이찬우 대표는 지난 13일 저녁 군산에서 열린 동문회장이 취임식에서 제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찬우 신임 회장은 "서천·군산지역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 동문회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며, "끈끈한 정으로 똬뚱 회원들과 합심 협력해 동문회를 키워나가고, 모교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봄철 조림사업 돌입

군산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은 월명공원과 청암산 등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재해방지조림 80ha', '큰나무 공익조림 30ha' 등 125ha의 산림에 총 13만여 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 대상지에는 수림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상록수인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대상지에는 꽃과 열매를 통한 주변 경관 향상도 모를 위해 산수유·이팝·팔배·벚나무 등을 식재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장애인단체 소방장비 보강
화재사고 예방 강화

군산시가 오는 28일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사고 예방 강화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 된 소방장비 교체 및 자동화산 소화기의 설치를 통해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 장애인 단체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진행된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소외된 장애인단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 학과통폐합 갈등 격화

미술학과 학생들,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A교수 성적·특혜 의혹 제기

군산대학교가 학과통폐합에 따른 학내 갈등에 휩싸였다.

14일 오전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미술학과 통폐합 반대와 함께 A교수의 비리 의혹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학생들도 모르게 학과통폐합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으며, 학과 통폐합과 관련해 학생들 설문조사를 하던 학과장 A교수가 강의시간 미준수와 특정학생에게 성적 및 특혜를 베푸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폐합에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3명의 교수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한 교수는 단 1명뿐이고 나머지 2명의 교수는 대화를 거절하거나 말장난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학생은 학교의 중요한 일원"이라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존재여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학생들은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교수의 성적·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정지와 명확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학과 통폐합관련 설문 조사를 하던 중 A교수의 비리와 의혹들이 대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것.

비대위는 "강의 시간 미준수와 특등 인에게 성적 및 특혜를 베푸는 A교수의 비리를 밝혀 교수직에서 사퇴하게 하고 다시는 학생들을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주 9시간(대학원 3시간 학사과정 6시간)을 정확히 준수했다"면서 "성적 특혜의혹 또한 최근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일학점 내에서 최대 학점을 인정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최상훈 군산대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학과통폐합은 생각한 적도 없으며, 미술학과 교수 3명이 통폐합을 동의하더라도 학생들의 동의가 없으면 즉각 반려할 것"이라며 "다만 대학 규정에 따라 정인 15명 미만의 경우에는 폐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A교수의 성적·특혜 의혹은 학과 자체의 문제로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올 뉴 크루즈 1호차 출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새롭게 출시한 올 뉴 크루즈의 군산 1호차가 출고됐다.

지난 13일 개최된 군산 1호차 주인공은 평소 내고장 상품 애용 운동에 앞장서고 I ♥ 세보레 I ♥ 군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진희완 군산시의원이다.

진희완 군산시의원은 직전 군산시의장 시절 전라북도 14개 시의경관 정기회의때 내고장에서 생산한 한국지엠차 구매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시의장 시절 관용차를 알뜰운으로 바꾸어 홍보하는 열정적인 활동을 했



으며, 이번에도 내고장에서 생산한 올 뉴 크루즈를 제일 먼저 사서 홍보하겠다면서 1호차 출고했다.

진희완 군산시의원은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올 뉴 크루즈의 군산 1호차 주인공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합라면 비료제조업체 대상 강력 단속

최근 비료공장 인근 입환자 집단 발병 보도와 관련해 익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3월 현재 (유)금강농산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공기조절장치 설치 등 7건을 적발해 고발처리(3건)하고,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법규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환경감시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시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지역 업체 보호 총력

익산시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자재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익산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제정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익산시 회계과는 연 초 각 부서에 '익산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제정을 알리고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시 지역 생산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업체 생산품 구매에 활용하기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100여개의 관내 생산제품 목록을 배포했다. 이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 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가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무원뿐 아니라 익산시 전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관내 업체 생산물품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용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학교병원 전복금연지원센터 2년 연속 최우수센터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원광대학교병원 전복금연지원센터가 전국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 평가에서 대상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원광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개최 한 국가금연센터 성과대회에서 2016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최종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원광대병원 운영 전복금연지원센터는 전복도민의 흡연을 감소 및 금연 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중증질환자 금연캠프,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금연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전복도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플라즈마 이용 고순도 나노다이아몬드 정제 기술 개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고순도 나노다이아몬드를 플라즈마를 이용해 기존보다 빠르게 저비용으로 정제 가능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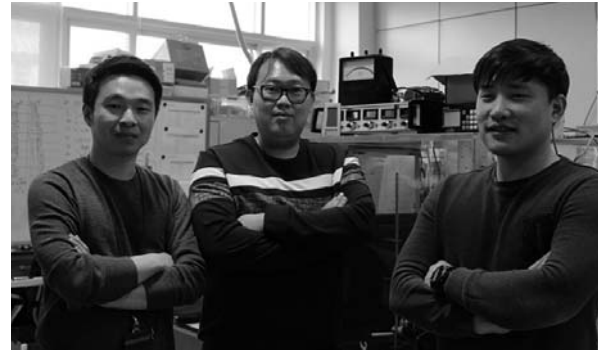
국가해양융합연구소(소장 김기만)는 14일 군산에 자리한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홍승표 선임연구원과 김태환 학생연구원, 이승환 선임연구원이 공동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순도 나노다이아몬드 정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나노다이아몬드는 높은 경도와 화학적 안정성, 높은 열전도도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표면 강도를 높이는 코팅이나 자동차 윤활유, 연마제,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차세대 소재이다.

기존에는 나노다이아몬드 생성을 위해 흑연을 폭발물과 혼합한 뒤 터뜨려 제조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폭발 시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 화학처리 작업을 필요로 해 높은 정제비용과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반면 해양융합연구이 개발한 나노다이아몬드 정제 기술은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가 함유하고 있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간편하



4일 군산에 자리한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홍승표 선임연구원과 김태환 학생연구원, 이승환 선임연구원이 공동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순도 나노다이아몬드 정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게 고순도 다이아몬드를 정제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저순도의 나노다이아몬드 분말에 플라즈마젯이라 불리는 가느다란 플라즈마를 쏘이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활성 산소가 나노다이아몬드의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고순도 다이아몬드 분말로 정제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화학적 정제방법에서 아끼되는 고비용과 화학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없어 저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고순도 다이아몬드 정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플라즈마젯

을 이용한 정제기술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직접적으로 정제가 가능해, 원하는 형태의 고순도 나노다이아몬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적이다.

이는 반도체 등 마이크로디바이스(micro device)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히트싱크(heat sink)로 적용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말 재료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카본(Carbon, 5 year impact factor: 6.832)'에 게재됐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어린이 행복특권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